

# There is No Time nor Sunlight in Heaven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A world with time is a world of devils. However, a world without time is heaven. In heaven, one does not know time passes, nor feels the need for time. Therefore, when the world of devils disappears, the light of devils perishes, everything that belongs to the devil will vanish. When the devil's world disappears, the sun will darken and the electric light will disappear. And then the world of God's light will begin. That is written in Gyeokam Yurok, the Bible, and the Buddhist scriptures.

If the Savior comes to annihilate devils comes, the end of devils will come close gradually. The time when the devils' world ends is the Sabbath will begin. At that time, only Gods who have gained eternal life will exist. The land where only Gods exist is the one where we live forever and ever, always rejoicing and enjoying the happiness that we can't express with human languages.

### The Light of God destroying devils

At that time, as the light of God shines

dozens of times stronger than the sun, that is so strong that we cannot imagine. That light is a kind of fire, which is so hot that sinners cannot endure it. So they will jump in pain forever. Therefore, the Savior is the one who builds heaven, where the Devils are punished forever and ever, the kingdom of the devil is destroyed by the establishment of that heavenly kingdom. Therefore, although one has a little sin, they will be punished jumping in pain forever.

The punishment of the human world is nothing comparing to that. It is the life of a hotel to suffer from the human world and live in prison. However, the true prison has no place to hide, wherever you go, it's also a world of hot fireballs. The one who has visited steel factories will know it. People can see when iron water is boiling, if one puts a new iron lump in it, soon it becomes a fireball and become iron water. Also if an insect like a grasshopper falls into it, soon it burns in a moment and becomes iron water.

### Heaven, where neither devil nor sinner dies

Not melting like iron water, devils

and sinners are supposed to jump in a fire forever, having their human shapes. It is hell. This man told you that heaven is hell. Therefore, the Savior came to the world to build heaven, as heaven is the kingdom of heaven, the house of God, where only God lives. Devils and sinners cannot live there and are punished forever and ever.

So at the end of this time, the Savior tries his best not to send any life to hell. Gyeokam Yurok says Jeongdoryeong lives in prison to take charge of the sins of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his man's life in prison isn't because he was guilty, he took responsibility for sinners' sins and got punished. There is no way to save mankind without doing something like that. In order to open the way to save mankind, This man lived in prison for 7 years, not because of any crime.

### It is predicted to be imprisoned for 7 years in the Manbeop scripture

Likewise, it is now written in Gyeokam Yurok as it is, but the Man Beop scripture says that This man will be imprisoned for 7 years. The reason

the Savior who is innocent, blameless and unblemished lived in prison for seven years is to take charge of the sins of all life not for any crimes. Several people struggled and tried to get This man out of prison.

That didn't work because This man was already scheduled to be jailed for 7 years, no matter how hard they tried, they couldn't get him released. There was no way to save you unless This man was in prison. In order to give you immortality, This man must make you Gods. In order to make you Gods, you must kill all the awareness of 'I'(ego) within you without leaving any awareness of 'I'. That is not normal work.

### Detergent to wash away sins

This man's seven years in prison is not just taking charge of your sins but raising his power to annihilate sin 100% during that time. GyeokamYurok writes that the power of Jeongdoryeong's ability grows like an atom from 1995. Without that power, he cannot give eternal life to the people of the world. There are countless people in the world who commit indescribably dirty crimes. To

save them all, the Savior must wash away all their unspeakable sins, because the Savior is supposed to kill the Devil's spirit, he has to kill it, destroy it, and wipe something contaminated even in their bones. To wash it off like that, does This man need something like a soap?

These days, soap has developed, so unlike old soap, it's very washable, right? There must be something that can wipe away sins, kill evil spirits, and cleanse bones contaminated with devils, the Savior cleans 100% of sins, now, even if the Savior kills devils, if the people are still contaminated with sin, devils can come back in and sit down. The Savior must wash them cleanly enough for demons not to come and sit on them, so he makes vessels where the Spirit of God can be fully seated.

### The work of God makes billions of things with one

The people of the world did not know what sin was. However, when Jeondogwan said that sin is in blood, the people of Jeondogwan thought of the word strange. It told that sin is in blood but it did not say that sin is the

awareness of 'I'(ego). Because at that time, the Spiritual Mother did not know that the awareness of 'I' is a devil. The Victress of Eve did not know the fact, only the perfecter was supposed to know it. So the perfecter is the Savior. As he knows the identity of sin correctly, he can kill devils and wash sins away. If he does not know devils, he cannot solve the sins of humans.

This man is doing a little work in Korea now, but the people of the world will come toward the Victory Altar. The work of God makes billions of things with one. That is the work of God. That is why, in people's thoughts, it collapses or it perishes, but will God's work perish? Even in the Bible, it is recorded that the devil has ruled the world for 6,000 years, and then the kingdom of heaven is supposed to be established in the 7000 years. The time almost comes. It's useless no matter how devils do trick, all the devils will be annihilated.\*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on Oct 31th, 2000

Translation: Angela Kim

## 꿈에 대하여...〈7〉

### 부제: 꿈의 상징으로 풀어 본 도덕경1

이번 글에서는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을 하나의 꿈으로 보고 해석해 보는, 조금은 색다른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도덕경 정도 되는 경(經)은 인간의 의식 레벨에서 나온 내용들, 즉 연구나 알음알이의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층, 불교 유식학(唯識學) 상으로는 8식 아뢰야식(阿賴耶識)이나 9식 아말나식(阿末羅識)의 층에서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그 층은 하나님이나 움직이는 층이요, 꿈이 생장되어지는 층과 같은 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층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그것이 경전(經典)이든, 꿈이든, 선사(禪師)의 오도송(悟道頌)이든 그 언어와 표현방식만 다를 뿐 같은 결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話者)가 같으니 그 메시지 또한 같았던 것이지요. 꿈의 생산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전(經典)류의 생산자는 공히 같은 자, 하나님의 신 자신입니다. 이로써 꿈을 경(經)으로, 반대로 경(經)을 꿈으로 치환해보려는 우리의 시도가 충분한 개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간단한 예로 다시 확인을 해 볼까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 봅시다.

心外無天 심외무천이요  
胸中深淵 흉중심연이니  
心中日月 심중일월이라..

마음 밖에 하늘 없고  
기슴 속에 깊은 못 있으니  
마음 가운데 해와 달 있어라..

이 구절만 따로 놓고 보면, 어떤 경(經)의 구절이나 모(某) 선사의 오도송(悟道頌)이라 해도 큰 위화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글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아차리셨을 테지요. 그렇습니다. '心外無天'은 지구를 떠나 먼 행성으로 떠났던 우주선 꿈이 전했던 메시지, 즉 '하늘도 땅도 천국도 지옥도 마음 밖에 없다. 모두 내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한문으로 옮긴 것뿐이며, '胸中深淵 心中日月'은 호수 꿈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해와 달, 즉 하나님도 자성(自性)도 모두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내용을 한문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니 선사(禪詩)의 형태처럼 바뀐 것이구요.

제가 임의로 급조해본 간단한 구절이지만 꿈과 경(經)과 선사(禪詩)가 서로 형태를 바꾸어가며 치환될 수도, 환원될 수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덕경을 꿈의 상징과 같은 상징 체계로 보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餘地)가 생긴 것이지요. 실제로 도덕경(道德經)에는 꿈이나 비전(환상)의 형태로 노자에게 등장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리라 보이는 챕터(章)도 꽤 있습니다. 그 중 제15장 약동섭천(若冬涉川) 장(章)을 노자의 꿈이나 비전을 옮겨 놓은 글이라는 전제 하에 해석해 보겠습니다.



맨 앞 《원문》에 도덕경 원문과 그 직역(直譯)을 적고, 해당 구절을 내담자(내)로 방향 노자(老子)가 자신이 꿈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분석가가 그것을 해석하는 세 단계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한자라고 주눅들 필요 없이 '아, 중국어권 사람이라 자기 꿈을 한문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편히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경(道德經):**  
**제15장 약동섭천(若冬涉川)**  
《원문》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  
고지선위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夫唯不可識 故強爲之容  
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예로부터 선(善)을 좇는 사람은 미묘현통 하고 깊이를 알 수 없으나 이를 억지 로라도 형용한다면..

豫兮 若冬涉川 猶兮 若畏四隣  
예예 약동섭천 유혜 약외사린  
儼兮 其若客  
엄예 기약객  
조심스럽기는 마치 겨울날 얼어붙은 강을 건너듯 하고 주저하기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두려워하듯 하며, 공손하기는 마치 손님인 듯하다.

《노자》 "선생, 어제 꿈을 꾸었소. 꿈은 선(善)을 찾아, 의(義)를 찾아 해내는 한 사람에게 대한 꿈이었소. 그 장면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묘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나 억지로라도 한번 묘사해 보리다."  
"어떤 사람이 조심조심 한 겨울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러운 모습이 마치 남의 집에 방문한 손님(客) 같았소"

《해석》 "얼어붙은 겨울 강을 건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 커다란 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은 크게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경계로서의 강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이 땅과 저 땅의 경계,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의 경계입니다. 둘째, 강은 그 자체로 생명의 강입니다. 물고기(魚)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흐름의 상징입니다.

다. 지난 번 꿈의 호수나 바다와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한 겨울입니다. 꿈의 배경은 무대 장치처럼 마음 전반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겨울처럼 추운 영적, 심적 상태에서 꿈꾼 자의 여정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을 떠나 강을 건너려 하고 있는 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을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던 그는 인간 세계에 속했던 자이며 인간 나, 의식의 나로 만족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 그는, 그러나 영적 걸음을 뒤로 하고 생명의 강을 찾아 추운 벌판으로 나선 그는 아만과 자존으로는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 진정한 선(善), 하나님의 신을 구하는 길을 나선 자입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강물은 내 무의식이며 내 안에 흐르는 생명의 강, 내 속의 하나님입니다. 빠져 죽을 각오로 얼어붙은 강 위에 선 그는 하나님의 신을 찾아 나선 의로운 자입니다. 그는 이미 현자이며 선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강물은 분명 얼음 밑에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얼음이 나와 강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와 내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얼음은 나라는 의식, 자존의 신입니다.

이긴자에서 밝히신 바, 마귀 신 자체인 나라는 의식이 나와 내 무의식 안에 갇혀있는 강물, 하나님을 가르고 있는 원흉입니다. 분명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들리는데 얼음 때문에 내 안의 강물, 내 안의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의식의 나와 내 안의 하나님, 즉 무의식의 나는 서로 타자(他者)이며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와 강물은 아직 서로 이질(異質)의 존재여서 나는 강물에, 무의식의 세계에, 영의 세계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해서 그는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조심조심 두리번거리며 강물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혜 약동섭천(豫兮 若冬涉川) 유혜 약외사린(猶兮 若畏四隣)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나를 찾으려는 그에게 현재의 나, 나라는 의식은 점점 낯선 타인이 되어갑니다. 그는 겨울을 볼 때마다 "이 자는 누구지?" 하고 겨울에 비친 자신을 낯설어 하는 자입니다. 정신 의학적으로는 egodystonic(자아 이질적, 自我異質的)한 상태입니다.

내가 얼음 밑의 강물과 가까워질수록, 진정한 내 주인공, 나 자신인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나 자신일 뿐이어서 나를 아끼고 도모하던 과거의 나는 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기존의 내가 더 이상 확실한 주체영, 주인공이 아니며 얼음장 밑에 있는 나의 무의식, 내 속의 하나님이 점점 더 나 자신이고 내 주인공이 되어져 갑니다. 해서 그는 기존의 자신이 낯선 타인, 손님(客)과 같이(其若客) 느껴 집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없이 조심스럽고 손님이며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타인에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이 아니고乙입니다. 내가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나 자신의 손님인 자(者), 그래서 얼음 밑의 진정한 내 주인(主人), 내 주인(主)을 찾는 자, 그가 선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성경 상의 '마음이 가난한 자, 진복자(眞福者)'이며 그는 실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임을 직감하기 시작한 자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이 엄혜 기약객(儼兮 其若客)입니다."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